

“현장 중심 입법·예산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미래 이끌 것”



서삼석, 22대 하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식량안보 대응 강화·기후변화 농정 전환 등 추진 과제 제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경남·무안·신안·사진)이 제22대 국회 하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3선인 서 위원장은 지난 20대에 여의도에 입성한 이래 줄곧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식량안보 강화, 농수산물 수급 안정, 농어촌 소

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정적 리드와 리더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 농해수위의 핵심 과제로 농협 개혁을 제시했다. 서 위원장은 “농협은 농업인의 생산과 유통, 금융을 책임지는 핵심 조직인 만큼 본연의 설립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며 “경제사업 활성화와 판매농협 구현, 조합원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 금융사업의 공공성 강화,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농협 개혁 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 농정 전환 △농어촌소멸 대응 △수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업 재해 대응체계 고도화 등을 하반기 농해수위의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서 위원장은 “농어업은 국가 경제의 한 분야가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와 국가안보, 국토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과 책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해 농어업인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러 “어려움 넘어 협치와 상생의 국회를 실현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농해수위를 만들어 농어업인과 수산인, 농어촌 주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대한민국 농어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민선 3·4·5기 무안군수를 역임한 뒤 지난 2018년 국회의원이 된 후 국회 농해수위 간사, 기후위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거치며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주력해 왔다.

이성우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교통공사, 청년 ‘내일(Job) 잇기’ 호응

광주교통공사가 지역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광주교통공사(사장 문석환)는 1일 광주지역 취업준비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내일(Job) 잇기’ 특별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상무 광주청년일자리리테이션과 협업해 지역 청년들에게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를 소개하고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용산차량기지를 방문해 전동차 검사와 중정비장을 견학하며 도시철도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과정을 직접 살펴봤다. 이어 공사의 주요 사업과 채용 제



도를 소개받은 뒤 사무·기술 직렬 현장자들과 멘토링을 통해 직무 특성과 채용 준비 과정, 실제 근무 경험 등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특히 입사 3년 이내의 신입 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예비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간을 마련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인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 직무대리 황기연 △안전진행부시장 직무대리 고광완

△2급 지방이사관 △산악임실장 안상현 △경제실장 주순선 △시민안전실장 김준영

△3급 지방부이사관 △자치행정본부장 강중철 △자치행정본부 자치정책관 김동현 △관광본부장 최영주 △문화본부장 황인체 △보건의료본부장 정광선 △보건복지본부 부지정책관 박정환 △농수산본부장 유덕규 △농수산본부 농수산정책관 박영태 △환경산림본부장 김정섭 △시민안전실 도시안전국장 전은욱 △기획조정실 행정통합추진담당 강효석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손병도 △기획조정실 전략기획관 윤창모 △감사위원회 전남감사담당관 최광식 △3급 농업연구관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강동관 △3급 지방법정직 △서비스실장 윤주식

△4급 승진 △산악안전국장 김중화 △4급 전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영 △5급 전보 △

행정과장 김용진 △재무과장 김미심 △경제교통과장 나숙자 △담양읍장 백종원 △고서면장 김은영 △가사문화재단 정영실 △대덕면장 이승모 △용문면장 김귀정 △공간재생과장 김용희 △도시과장 채인화 △재난안전과장 최재호

△4급 승진 △임창복 △5급 승진 △임창복 △배미연 △이진희 △최홍래 △농촌지도관 승진의 △김태웅

△3급 승진 △체육운영본부장 박

처은 △3급 전보 △체육진흥본부장 문부

홍 △4급 승진 △체육운영본부 시설부장

나성현 △체육진흥본부 생활체육부장 조

태현 △5급 승진 △기획경영부 인사총무

팀장 문성수 △시설부 영주시설팀장 이재

필 △5급 전보 △기획경영부 기획홍보팀

장 박성용 △시설부 무등시설팀장 정석완

△시설부 전월시설팀장 전경민 △생활체육부 생활체육팀장 선형근 △안전감사실

장 유성훈

삼도농협 김성주·차수안 부부 ‘이달의 새농민상’

완속토마토 재배기술 선진화
농가소득 증대 기여 등 공로

농협 광주본부는 농협중앙회의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삼도농협 조합원 김성주·차수안 부부가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달의 새농민상’은 전국 농·축협 조합원 가운데 영농의 과학화와 합리적인 경영, 지역사회 봉사 등을 실천하며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기여한 부부 농업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농협중앙회의 대표적인 농업인 상이다.

김성주·차수안 부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여년간 시설하우스 완속토마토를 재배하며 품질 향상과 재배기술 선진화에 힘써왔다.

또한 수도작을 비롯한 복합영농 기술을 지역 농가에 전파하고, 농협 중심의 공동출하회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 앞장서는 등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



농협중앙회가 선정하는 7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로 삼도농협 조합원 김성주·차수안 부부가 선정됐다.

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성주·차수안 부부는 “묵묵히 농사에만 전념해 왔는데 농업인에게 가장 뜻깊은 상인 ‘이달의 새농민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삼도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 상생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주·차수안 부부는 “묵묵히 농사에만 전념해 왔는데 농업인에게 가장 뜻깊은 상인 ‘이달의 새농민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삼도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 상생을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은 “오랜 시간 흘린 땀과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진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을 이끌어가는 선도 농업인들이 영농 멘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 ‘호국·보훈 음악회’ 성료

호국영령 희생정신 공연예술로 ‘승화’
장병 가족·청년 동아리·청소년 등 호평

(제)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이사장 이근우)은 지난달 30일 ‘제3회 호국·보훈 음악회’를 열고, 호국·보훈 정신을 문화예술로 계승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국가보훈부가 후원한 이번 음악회는 광주벨칸토성악아카데미와 청년 호국 아리랑 동아리가 참여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청소년과 지역민이 호국·보훈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제11공수특전여단 소속 군 장병 가족과 보훈가족, 나주 남평중학교 1학년 학생, 광주·전남 지역민 등 총 33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기념행사와 성악공연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환영사에 이어 청년 호



(제) 국제청소년교육문화원은 최근 ‘제3회 호국·보훈 음악회’를 열고, 호국·보훈 정신을 문화예술로 계승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국 아리랑 동아리와 청소년들이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 등 나라사랑을 주제로 한

합동공연이 펼쳐졌다. 2부에서는 광주벨칸토성악아카데미 소

속 성악가 16명이 ‘내 맘의 강물’을 비롯한 총 11곡을 선보였다. 이탈리아·독일·영국 등에서 전문 음악교육을 받은 성악가들과 정병민 국립목포대 교수 등이 출연해 관객들을 깊은 감동을 전했다.

이근우 이사장은 “이번 음악회는 청소년, 군 장병 가족, 보훈가족, 지역민이 한 자리에 모여 호국·보훈의 의미를 공유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세대 간 공감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호국·보훈 정신은 미래세대가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인 만큼, 앞으로도 청년과 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연계 보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호국·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취약계층 복지장서서비스=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장례지도서무료지원 062-369-4009.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봉사량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면)=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부음 △김재기씨(전남대 교수) 별세=6월 30일 오전, 빈소 광주 국민장례문화원, 발인 7월 2일 오전 9시30분. 062-606-4000.

은세 (음력 5월 18일)

48년생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해결하라
60년생 시종일관 빈틈없이 신경 써야 할 것
72년생 조상 기도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84년생 밖에 나가면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96년생 공간적 한계를 통감하게 될 것이다

51년생 배우자의 부덕이 화가 된다
63년생 탄식만 하지 말고 정성껏 노력하라
75년생 기반을 닦고 때를 기다려라
87년생 발이 풀을 따는 날이니 매사가 힘차다
99년생 여행은 피하고 물가 사고를 조심하라

54년생 공들여 온 일이 분명히 거둬들인다
66년생 꽃보다 열매의 실속을 취하라
78년생 검은색 차 교통사고를 주의하라
90년생 기대만큼 보람이 있다

57년생 감정 기복이 심하니 스스로 다스려라
69년생 알류나 보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
81년생 겉은 화려하나 실속이 없다
93년생 망설이지 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49년생 자녀 근심이 있고 남쪽에서 구설이 있다
61년생 아무 필요 없는 문서가 날아올 것이다
73년생 친구 덕에 기분을 내보라
85년생 집안은 무고하나 다소 쓸쓸하다
97년생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니 조심하라

52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금전 거래 하지 마라
64년생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찾아내야겠다
76년생 조언을 받아들여라
88년생 상사가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라

55년생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게 되리라
67년생 공허한 재물을 탐내지 마라
79년생 차선책까지 모색해 두라
91년생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라라

58년생 마지막에 극적인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70년생 의도대로 행해도 무방하다
82년생 조언을 구해 보면 분명히 답을 얻는다
94년생 지인에게 도움을 빌리면 모두 잘 풀린다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50년생 아랫사람과 말다툼이 관재로 이어진다
62년생 가족과의 정거리 여행은 피하라
74년생 일에 정애가 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
86년생 배우자 외의 자를 타만 훔칠 수 있다
98년생 취업에 힘쓰면 좋은 소식이 온다

53년생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금물
65년생 문서를 주고받은 좋은 운이다
77년생 금전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89년생 마음은 여럿인데 몸은 하나다

56년생 괜히 나서다가는 실기할 수 있다
68년생 여든 넘어서면 좋은 결과가 있다
80년생 바라지만 말고 움직여라
92년생 신뢰를 얻으리라

59년생 매사에 불만이나 끝내 이뤄진다
71년생 몸은 고달피도 노력한 보람은 있다
83년생 부동산으로 형제와의 다툼을 경계하라
95년생 기쁜 시간을 나누리라